

## 곡물메이저와 우리나라 곡물 수입



이 대 섭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적 식량위기를 계기로 곡물메이저들은 곡물부분 합병, 수출입의 다변화 등을 추진하면서 국제시장에서의 역할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곡물 수입시장에서도 60%이상이 곡물메이저에 의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실행하고 있는 곡물 수입방식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입찰공고를 내고, 최저가격으로 낙찰 받은 공급사를 통해 수입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방식은 곡물가격의 급등시 위험요소들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입방식을 분석,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수입방식을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 곡물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위 곡물메이저라 지칭되는 다국적 기업들과 우리나라 곡물 수입과의 관계 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 국제 곡물시장과 곡물메이저

세계 각국이 1970년대 초 식량파동을 겪은 후 지속적으로 곡물생산을 증가하여 곡물 재고율은 1986년에 39.5% 까지 증가하였다. 1986년 이후 곡물 재고율은 30%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는 밀과 옥수수의 재고량 감소로 인하여 20% 정도까지 급격히 감소하였다. 특히 밀, 옥수수, 대두 중 상대적으로 생산량 비중이 높은 밀과 옥수수의 재고량 감소는 대두의 재고량 증가를 상회하여 곡물 재고율 감소의 원인이 되었다.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한 곡물 재고율은 2006/07년 18.9%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중국, 인도 등 거대인구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소비 패턴 변화, 원유가 상승으로 인한 바이오 연료용 곡물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다. 그 후 곡물 재고율은 생산량이 소비량 보다 많이 늘어나 2008/09년에는 21.6%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곡물의 물류체계는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 부터 우리나라 주요 항구에 도착하는 물류 루트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중부부의 생산지 → 미시시피강 바지선로 New Orleans항 → 파나마 운하 → 한국」 이라는 해상운송경로이며, 한국으로의 수출 대부분은 이 루트가 사용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생산지 → 철도로 포틀랜드 항구 → 태평양 → 한국」이라는 육로운송경로이고, 아시아로의 해상 수송거리가 짧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림 참조>.

곡물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세계적 규모로 연결시키는 대규모 곡물 유통업자들이다. 최근 다국적 곡물메이저는 카길을 비롯하여 에이디엠, 병기, 그리고 Louis Dreyfus가 대표적이다. 카길, 에이디엠과 병기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합작투자 및 합병으로 국제곡물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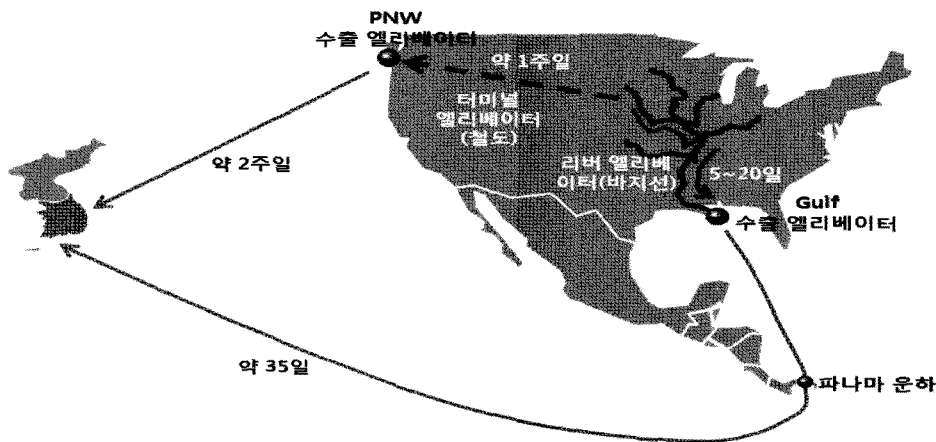
에서의 입지를 확장하여 왔다.

곡물메이저들이 유통하는 곡물이 국제시장에서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농업 생명공학기업들과 합작관계(카길과 몬산토(Monsanto), 에이디엠과 노바티스(Novartis))를 추진하여 종자산업, 특히 유전자 변형 농산물까지 역량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 우리나라의 곡물수입과 곡물메이저

우리나라는 순수 곡물 수입국으로 밀, 옥수수, 대두의 수입량은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1천 3백만 톤에서 1천 4백 70만 톤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 특히 2002년과 2003년에는 1천 4백만 톤 이상을 수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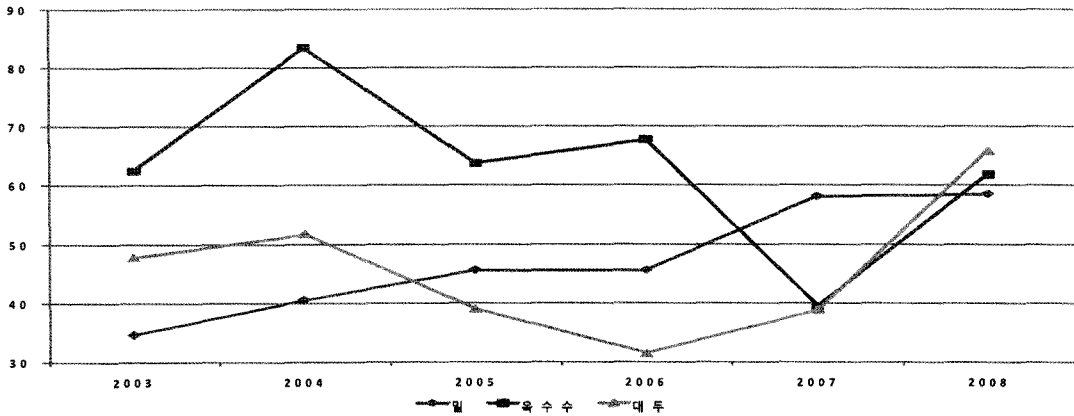
쌀을 포함한 곡물 자급율은 2008년 기준으로 26.2%이나, 밀, 옥수수, 대두의 자급율은 각각 0.35%, 0.90%, 7.1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8년 밀, 옥수수, 대두 수입량은



<그림> 미국의 곡물 물류체계

우리나라 곡종별 곡물메이저의 수입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각각 270만 톤, 900만 톤, 130만 톤에 달하며, 이들 품목은 전체 공급량에서 수입된 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주요 사료 및 식용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고, 특히 밀과 옥수수는 거의 100%에 가깝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 곡물의 우리나라 도입가격과 국제가격간의 관계를 가격 전이효과 분석결과 국제 시장가격이 장기적으로 1% 변할 때 옥수수 약 0.97%, 밀 1.12%, 그리고 대두 0.96%가 우리나라 수입시장에 흡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제시장의 가격 변동이 우리나라 곡물 수입시장에 전이되는 효과는 거의 100%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곡물 수입시장은 외부충격을 국내시장에서 그대로 흡수하는 구조라 설명될 수 있으며, 외부충격에 방어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미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곡물 수입시장에서 곡물메이저

가 차지하는 비중은 밀의 경우 2003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두 역시 2006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대두수입시장에서의 비중은 급등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반면 옥수수는 2007년을 제외하면 60% 이상의 비중이 지속되어, 전체적인 우리나라 곡물수입시장에서의 곡물메이저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되었다.

표준편차, 평균 공급가격, 그리고 변이계수를 전 기간과 급등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옥수수의 경우 전 기간 곡물메이저가 평균 비메이저 보다 \$7.3/톤 낮은 가격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국제시장에서 안정된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표준편차나 변이계수의 크기가 비메이저 보다 작기 때문에 곡물메이저의 공급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 할 수 있다. 곡물수입의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

### 옥수수 낙찰가격(메이저 vs 비메이저)

단위: \$/톤

구분		전체	메이저	비메이저
전기간 (2003. 1 ~ 2008. 12)	평균	181.4	179.2	186.5
	표준편차	63.4	62.5	65.5
	변이계수(%)	35.0	34.9	35.1
급등기 (2006. 11 ~ 2008. 12)	평균	265.2	273.9	253.4
	표준편차	45.3	44.0	44.6
	변이계수(%)	17.1	16.1	17.6

과의 간담회 개최결과 국제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대부분의 비메이저들은 도착시기(현물인도시기)의 가격 및 시장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개월 이전에 실행되는 입찰에는 손익계산이 불분명하여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밀의 경우 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옥수수와 달리 표준편차와 변이계수는 곡물메이저에서 약간 높게 나타나 불안정한 공급가격구조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곡물가격의 급등시 비메이저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실적이 적어 대부분을 곡물메이저가 공급하였다. 하지만 표준편차와 변이계수를 비교하면 곡물메이저들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별, 공급사별 가격분석 결과 곡물메이저가 공급하는 곡물의 원산지는 남미, 북미, 아시아, 유럽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반면 비메이저의 원산지는 옥수수의 경우 미국, 중국이 대표적이고 밀의 경우는 미국, 호주, 캐나다에 집중되어 있었다.

우리나라가 수입한 옥수수의 공급사별, 원산지별 낙찰가격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

### 밀 낙찰가격 분석(메이저 vs 비메이저)

단위: \$/톤

구분		전체	메이저	비메이저
전기간 (2003. 1 ~ 2008. 12)	평균	173.7	178.6	154.3
	표준편차	63.5	65.1	54.1
	변이계수(%)	36.6	36.4	35.0
급등기 (2006. 10 ~ 2008. 12)	평균	251.9	258.2	208.0
	표준편차	83.8	76.2	139.3
	변이계수(%)	33.3	29.5	67.0

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산의 경우 2003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곡물메이저가 비 메이저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산은 오히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기타 원산지로 분리된 남미와 동남아시아산 분석결과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곡물메이저는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옥수수의 경우 평년에는 비 메이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로 공급하며, 국제가격이 급등시에는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분석, 높은 가격대에 공급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밀의 경우 평년 및 가격 급등시에도 비 메이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로 우리나라 시장에 수출하였으며, 특히 가격 급등시에는 기타 밀 수출기업이 전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곡물메이저들의 독점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비 메이저로 분리된 비 메이저는 시장 예측력 약화로 인해 우리나라 곡물수입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곡물메이저가 우리나라 곡물수입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은 평년보다 곡물가격이 급등하거나 불안정한 시기에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 우리나라 곡물 수입방식

품목별 우리나라 수입방식을 살펴보면,

밀의 경우 지역별로 대규모 회원사가 중심이 되어 월별로 각 회원사의 밀 수입물량을 취합한 후 공동으로 용선하여 밀을 구매하고 일부 회원사는 단독으로 용선한 후 밀을 구매한다.

옥수수의 구입 형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료회사가 회원사로 되어 있는 사료협회를 통한 공동구매와 농협사료의 단독 구매가 있다. 최근 농협사료에서 베이스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있지만 대부분이 공개경쟁입찰로 Flat거래가 주를 이룬다.

식용대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을 해서 실수요자에게 분배를 하고,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대두는 대두가공협회에서 수입추천권을 갖고 대두가공 회사에 선착순 배분을 하며 각 회사가 직접 수입을 한다. 공개 경쟁입찰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C&F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FOB로 수입을 한다. CJ의 경우 일부 물량에 대해 선물계약을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곡물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방식은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Flat거래이다. 이 방식은 인도일과 비교하여 평균 3개월 전에 약 5만 톤~5만 5천 톤 수준의 대량 곡물을 C&F Flat 가격으로 최저가에 낙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낙찰된 곡물이 우리나라 수입항 도착시 국제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그 가격변동은 수입곡물의 최종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국제곡물가격의 변동 폭이 큰

시점에서는 위험요소가 증가하여 그 파급영향은 대부분 국내 시장으로 흡수되어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자 및 최종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 수입방식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Basis 거래를 활성화하여 단기적으로는 선물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곡물메이저의 의존도를 감소하기 위해 직접구매를 병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첫째, C&F Flat 가격 중심의 거래에서 Basis 거래와 선물거래로 구분하여 위험요소를 분산 시켜야 한다. 둘

째, 베이스스 거래를 위해서는 선물시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Basis 거래와 선물시장 활용의 곡물 수입방식만으로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최근 국제곡물시장의 영향을 100% 회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직접구매 비중을 늘려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수입은 최종수요자인 사료 및 가공업체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고 정부는 TRQ관리만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관리 및 보관 하여야 할 중요한 자료 및 정보가 축적되지 않아 현실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